

enterprising-PRIME Special Interview II

SMaSH

Software
Maven
School at
Hanyang
University
ERICA



소프트웨어융합대학
도경구 학장

“넘버원 보다 온라인! 특색과 매력이 있는 대학을 만들 것”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에 새롭게 설립된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융복합, 소프트웨어(SW), 정보통신기술(ICT) 등 미래유망분야에 특화된 교육과정은 물론, 탄탄한 프라임장학 혜택과 첨단 시설 구축 등 독보적인 경쟁력을 앞세워, 이번 2017학년도 수시모집에서도 높은 경쟁률을 자랑했다. 그러나 신설 단과대학으로서, 앞으로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이 풀어나 가야 할 과제와 역할도 만만치 않다. 지난 9월부터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의 학장을 맡아 매일 매일 치열하게 대학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여념이 없는 도경구 교수를 만나 대학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짚어보았다.

이번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의 신설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정보사회가 진화를 거듭하면서 이제는 인간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소통할 수 있게 되고, 컴퓨팅 및 인공지능 기술이 현실의 다양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면서 지식노동의 자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인간의 생활뿐만 아니라 직업의 패러다임도 급속히 바뀌고 있다. 그 중심에 소프트웨어 기술이 있다. 따라서 대학 교육도 학문의 모든 분야에 소프트웨어 기술이 접목되도록 변화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합대학의 신설은 새롭게 펼쳐지는 미래에 대비하여 대학 교육 패러다임 변화의 중심에 서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의 각 학부 및 전공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그동안 컴퓨터공학과는 컴퓨터사이언스 분야의 최근 동향에 맞추어 교과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소프트웨어학부는 이를 이어받아 지속적으로 산업 동향과 학문 발전에 맞추어 개선해나갈 것이다. ICT융합학부는 미디어테크놀로지, 컬처테크놀로지, 디자인테크놀로지 세 전공으로 나뉘어져 있다. 미디어테크놀로지 전공은 소프트웨어와 미디어콘텐츠와 미디어기술의 융합으로, 컬처테크놀로지는 소프트웨어와 게임, 애니메이션 등의 문화콘텐츠와 예술공연기술의 융합이고, 디자인테크놀로지는 소프트웨어와 공학과 디자인의 융합이다.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을 허브로 하여 인문, 사회, 예체능 계열 재학생들이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전략인가?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의 학생들은 일종의 '인사이드 아웃' 전략으로 전공과목을 수학할 수 있다. 1~2학년 과정을 통해 컴퓨터과학의 기초를 닦은 후에, 고학년에 올라가면 각자 관심 있는 분야로 퍼져나가면서 다른 전공 학문들과 융합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아웃사이드인' 전략을 통해 타 단과대학 학생들이 자신들의 학문적 기초를 바탕으로, 다전공 및 복수전공 방식을 통해 소프트웨어학문을 수학하고 공학사도 취득할 수 있다.

기존에 타 대학에서도 많이 시행하고 있는 인문-공학계열 간의 복수전공과 차별화 포인트는 무엇인가?

전통적으로 비이공계열에서 공학계열을 복수전공하는 사례는 드물었다. 소프트웨어와 컴퓨터공학에 관심은 높지만, 이공계 학생들과 함께 경쟁하기에는 진입장벽이 높은 학문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소프트웨어융합대학에 신산업소프트웨어전공이라는 융합전공을 개설하여 인문, 사회, 예체능 등



전 계열 학생들이 소프트웨어과목을 비교적 용이하게 수강하고 본인이 원한다면 소프트웨어학사도 취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프라임학과를 통해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은 무엇인가?

우선 수시, 정시 모두 최초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4년간 반액 및 전액 장학금을 지원한다. 또한 학연산클러스터에 2개 층을 증축하여 최첨단 강의실 및 학습, 토론 공간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기존의 일방적인 전달방식의 강의에서 벗어나, 학습자 중심의 혁신적 교육모형인 PBL을 도입하게 된다.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팀플레이를 통해서 협조와 경쟁을 터득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앞으로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의 미래를 위해 어떤 역할을 맡고자 하는가.

수혜자도, 교육자도 모두가 혁신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분위기와 제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 단순히 일류대학을 만들어야겠다, 인기 학과를 만들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 대학의 뚜렷한 특색과 매력이 담긴 대학 브랜드를 구축하고 싶다. 그리하여, 누구나 '저 대학에 가면 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고 싶다.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은 독립적으로도 존재가치가 있지만, 캠퍼스 내의 다른 8개 대학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소프트웨어융합대학만의 비전이 아닌, ERICA캠퍼스 전체의 혁신과 궤를 함께하는 미래를 펼쳐나가고자 한다. @